

포스터 III-1

제 목	국 문	산모의 임신중 체중증가, 임신전 비만지수와 출생아 체중과의 관련성
	영 문	Correlation between maternal weight gain, prepregnant BMI(Body Mass Index) and birth weight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이무식 ¹ , 이미영, 신동훈, 서석권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산업의학과 ¹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Moo Sik Lee, Mi Young Lee, Dong Hoon Shin, Suk Kwon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발표 형식	포스터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8년 12월	

1. 연구 목적

출생시 신생아의 체중은 모성의 연령, 출생순위, 임신간격, 임신기간, 사회경제적 수준 및 산전관리, 임신중 체중증가와 같은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중 산모의 임신중 체중증가는 거대아 발생 또는 자궁내 발육 감소와 관련되어 신생아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임신중 체중증가는 임신전체중과 상관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그래서 미국의 IOM(Institute of Medicine)은 임신전 BMI에 따라 각기 다른 임신중 체중증가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전 BMI, 임신중의 체중증가 및 신생아 체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신생아의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산모의 임신중 체중증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 대구시 1개 종합병원의 산부인과를 방문한 임신 37-42주 사이의 산모 707명이었다.

2) 조사방법

- ① 산모의 나이, 키, 출산력, 임신일수, 임신전 체중, 분만전 체중을 측정하여 임신중 체중증가와 임신전 비만지수(BMI)를 산출하였다.
- ② 신생아의 성, 출생시 체중
- ③ BMI에 따른 체중군 분류: BMI 18이하 - 저체중군

3. 연구결과

- 1) 산모의 평균연령은 27.6세, 임신중 평균 체중증가는 13.0kg, 임신전 평균 BMI지수는 20.53, 출생아의 평균체중은 3303.8g이었다.
- 2) 임신전 산모의 체중군에 따른 단일변수분석에서 산모의 연령, 임신중 체중 증가, 임신전 BMI, 출산력, 출생아 체중 및 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3) 임신전 체중군별로 본 단순회귀분석에서 임신중 체중증가가 출수록 출생아 체중이 증가하였고 저체중군일수록 뚜렷한 증가경향이 있었다.
- 4) 다중회귀분석에서 출생시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에서는 임신중 체중증가, 임신전 BMI, 임신일수였고 과체중군에서는 임신중 체중증가와 임신일수가 유의하였다. 출생시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임신중 체중증가의 설명력은 5-9%였고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의 순이었다.

4. 고찰

임신중 체중증가는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 모두에서 출생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였고 저체중군일수록 임신중체중증가와 출생아체중이 큰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앞으로 산모의 체중군별로 저체중아 및 과체중아의 발생빈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산모의 임신전 체중군에 알맞는 임신중 체중증가 참고치를 개발함으로써 적절한 출생체중을 유지하여 출생후 사망 또는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